

「Jabberwocky」의 포트맨토 어휘의 번역에 대한 연구

김도훈

(부산외대)

1. 서론

St. Jerome의 유명한 격언인 “non verbum e verbo, sed sensum exprimere de sensu(단어대 단어가 아니라, 의미대 의미)”는 오늘날 문학 작품은 물론 성경을 포함한 대다수 장르의 번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넌센스 시, 특히 「Jabberwocky」¹⁾의 번역에 있어서만큼은 선뜻 인정되거나 적용되기 힘들다.

이는 넌센스 시 번역의 경우 번역사가 의미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장르의 본질에 의해 크게 제약받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넌센스 텍스트가 비록 센스의 범주 내에서 의미를 구축하기는 하지만 의미 해석의 경계를 제한하지 않고 다중 의미를 가지며 의미 증폭 효과를 노리고 있고(Lecerclre 20) 「Jabberwocky」의 넌센스 세계가 단어와 단어 사용 방법의 영역이며 놀이의 대상이 단어이기 때문에 St. Jerome의 번역 철학을 수용하기가 힘든 것이다.

1) Lewis Carroll의 『Through the Looking Glass』에 등장하는 포트맨토 시.

그렇다고 해서 단어 차원의 번역이 수월한 것도 아니다. 「Jabberwocky」의 경우 Carroll의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신조어가 대거 등장하며 이를 통해 전복과 패러디의 넌센스 세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이 이루어지면 출발어의 전복과 패러디가 도착어 텍스트에서는 무의미한 말장난으로 변질되거나 의미에 대한 다중 해석 및 반성이 결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넌센스 게임의 본질적인 성격이 관념 내의 ‘질서-무질서’의 자기 표현법²⁾이라는 점(Kelly 54)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별력의 왜곡이 번역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듯 번역사는 장르의 본질상 시작부터 큰 제약과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회의 및 의미에 대한 넌센스 방식의 답변은 의미에 대한 의문 자체이며 답변 거부와 부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어떤 방식으로든 번역이 이루어져야하며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번역사들이 어떠한 눈으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접근법에 기초하여 넌센스 시를 번역하고 있는가를 「Jabberwocky」의 번역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과 번역전략을 기술 정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1.1. 연구 자료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출발어 텍스트와 도착어 텍스트는 아래와 같다.

〈표 1〉 본고의 연구 자료

구분	책 제목	저자 역자	출판 연도	출판사
ST	Through the Looking Glass	Carroll, L.	1865/1998	Penguin
TT1	거울 나라의 앨리스	손영미	2001	시공주니어
TT2	거울나라의 앨리스	최현미	2005	넥서스
TT3	거울 나라의 앨리스	최인자	2005	북폴리오
TT4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최용준	2007	열린 책들

ST의 경우 「Jabberwocky」 완결본을 수록하고 있으며²⁾, 시에 대한 간략한

2) 넌센스 시 「Jabberwocky」는 Carroll의 『Through the Looking Glass』에 앞서 『Misch-Masch』에 먼저 실렸지만, 완결된 시가 아니라 일부만이 실렸고, 본고에서는 완결된

설명을 제공하자면 「Jabberwocky」는 가장 잘 알려진 넌센스 시로, 넌센스 문학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대표한다(Gardner 1960 192). 어느 젊은이와 괴물의 결투를 주제로 하는 영웅풍 발라드(mock-heroic ballad) 구조에 기초한 시로 Jabberwock, Jubjub bird, Bandersnatch 등의 괴물과의 전투에서 용기를 잃고 후퇴하려던 한 청년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Jabberwock을 무찌르는 내용으로 이 시의 넌센스는 신조어 사용, 특히 새로운 포트맨토 단어(portmanteau³) words의 사용을 통해 구축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Lecerclre 38-44). 이러한 시도를 통해 Carroll은 센스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맹목적 반대가 아닌 유쾌한 해체, 그리고 전복과 반성을 꿈꾼다. Carroll은 특히 「Jabberwocky」를 통해 아동 문학의 단조로움을 다양성으로 변화시켰으며, Humpty Dumpty의 기존 질서에 대한 의문과 거부를 극적이고 압축적으로 나타내어 『Through the Looking Glass』 전체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본고에서 도착어 텍스트로 사용하는 연구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4종의 텍스트이며, 보다 더 많은 번역 종을 살펴보면 개인의 번역 습관 관찰을 넘어 더욱 객관적인 틀 내에서 다양한 접근법과 번역전략을 살펴보기에 용이하겠지만 번역 출판된 것이 이질뿐이기에 다소 아쉽지만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본문에서 기술하겠지만, 다소 상이한 번역전략을 구사하고 있기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우선 병렬 가치(parallel value)의 달성이 넌센스 시 번역의 목적이라는 주장(Orero 91, 101)에 기초하여 이러한 병렬 가치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수용자 반응 차원의 등가⁴) 구현 또한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크게는, 센스 세

시를 연구 자료로 사용한다. 출발어 텍스트로 사용된 자료 역시 완결된 시를 번역한 것으로 도착어 텍스트와의 비교가 용이하다.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ST, TT1, TT2, TT3, TT4에 실린 시를 본고의 부록에 첨부한다.

- 3) ‘Portmanteau’는 본래 양쪽으로 열리는 큰 여행용 가방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Humpty Dumpty가 「Jabberwocky」에 나오는 Carroll의 신조어를 설명하면서 문학 비평 용어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종종 혼성어인 포트맨토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한 단어로 담고 있거나 다중 의미 형성의 가능성을 제공한다(Redfern 114).

계의 Alice의 거부감과 의아함⁵⁾,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결국 수용과 매료⁶⁾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포트맨토의 가치, 작가는 센스 세계에서 출발해 경계선을 허물고 넌센스 세계로 향하면서 의미 해석의 범주를 개방시키는 포트맨토 어휘의 자유로움의 가치(Lecercle 20)가 출발어 텍스트에서도 평행선에 가깝게 재현되어야 하며, 이러한 병렬 가치의 재현은 Alice를 통해 투영된 출발어 독자가 「Jabberwocky」를 읽으며 얻는 정보와 감흥 차원의 수용자 반응과 도착어 독자의 반응에 있어서의 등가를 창조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Alice가 거울 나라의 넌센스 세계와 넌센스 언어를 초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센스 세계를 이루는 언어와 넌센스 세계를 창조하는 언어 규칙의 불일치와 언어 구성원 간의 합의의 상이함에서 비롯되며, 이에 따라 「Jabberwocky」와 같이 포트맨토 차원의 신조어 창조를 통해 넌센스 세계를 구성하는 시의 번역을 접근함에 있어서는 개별 단어 차원의 병렬 가치 재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출발어 텍스트의 포트맨토 단어에 대한 해석을 기초로 다수의 도착어 텍스트를 출발어 텍스트와 비교함은 물론 도착어 텍스트 간의 비교를 통해 넌센스 시 「Jabberwocky」의 핵심인 새로운 포트맨토 단어 번역에 있어서의 접근법과 문제점을 짚고 평가할 것이다. 「Jabberwocky」에 나오는 출발어 넌

4) 독자 반응 차원의 등가를 일컫는 말로 현실적으로 번역의 효용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주체가 독자이기 때문에 번역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김정우 35). 참고로, Nida는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의 중요성을 논증하며 역동적 등가의 핵심으로 수용자(receptor)에게 미치는 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며 출발어 독자의 반응과 도착어 독자의 반응이 등가를 이룰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5). 물론 수용자 반응의 경우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Gentzler 43-60), Reiss와 같은 학자는 이러한 등가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상황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Nord 9-11에서 재인용).

5) Alice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They don’t keep this room so tidy as the other (Carroll 127)”라 말하며 처음에는 센스 세계의 구조에 스스로를 가두며 넌센스를 거부한다. 또한 Jabberwocky의 첫 번째 스타자가 시에 앞서 역으로 인쇄되어 있는 점에서 Alice의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

6) Alice가 Jabberwocky」를 접한 후—아직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하지만—“It seems very pretty(Carroll 134)”라 하는 등 조금씩 적응을 하며 모험이 진행됨에 따라 넌센스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대되고 결국 매료된다.

센스 포트맨토 어휘에 대한 해석은 심도 있고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Gardner(1960), Gardner(1962)의 설명에 크게 기초하기로 한다. 이 자료들은 Carroll이 『Through the Looking Glass』, 『The Hunting of the Snark』 등의 작품, 그리고 지인과 출판사에 보내는 서신 등을 통해 Carroll 스스로, 또는 Humpty Dumpty를 통해 「Jabberwocky」에 나오는 포트맨토 언어에 대해 언급하거나 설명한 것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해석한 것으로 출발하여 어휘에 대한 유용한 해석 기준의 틀이 될 것이다. 더불어 Partridge(1950)의 분석도 포트맨토 어휘 해석에 있어 명료성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기에 참고하기로 한다. 이에 기초하여 도착어에 대한 분석을 필자가 진행함에 있어서는 전술한 병렬 가치의 달성을 위주로, 동사, 명사, 수식어로 나눈 후 순서에 따라 비교하며 기술하기로 한다. 이렇듯 품사 단위로 분석을 진행하는 이유는 각각의 품사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과 이에 따른 일반적인 번역 양상을 관찰하기 위함이다.

어휘 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두는 이유는 「Jabberwocky」의 년센스 구축에 사용된 것은 년센스 어휘에 국한되며 시의 형식 측면에서는 기존의 발라드 형식을 사실상 그대로 취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형식 차원의 년센스 세계 구축에는 실패했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했고 운율의 측면에서도 특수성이 없으며 여타 저항 구조(structure of resistance)의 부재로 인해 형식적 측면에는 큰 관심을 둘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Holquist 148; Sewell 38).

이러한 분석을 통해 「Jabberwocky」의 번역이 의미 없는 말장난의 창조가 아니라 병렬 가치의 재현이 되고 년센스 텍스트의 본질인 재해석과 반성이 출발하여 독자와 도착어 독자에게서 대등하게 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접근법과 번역 기법을 찾아볼 것이다.

2. 「Jabberwocky」의 동사 포트맨토의 번역

동사의 경우 새로운 포트맨토를 만들 때 신중해야만 한다. 자칫 황당한 말장난이나 황설수설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Jabberwocky」의 경우에도 센스 세계의 전복을 꿈꾸지만, 관계 설정의 기능을 하는 동사 포트맨토의 사용은 제한적이며 명사나 수식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계선이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번역 또한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래의 번역 사례를 살펴보면서 논의를 이어가자.

〈표 2〉 동사 포트맨토의 번역 사례 비교 1

	gyre	gimble	outrabe	whiffle
TT1	선회하며	뚫고 있었다	끼익거리고 있었다	흔들흔들
TT2	선회하며	뚫었다	끼익거렸다	헤치고
TT3	빙돌고	윙뚫고 있었네	꽤백 울붙었네	휘휘
TT4	팽돌하고	나사구하고 있었네	휘함하고 있었네	흔들흔들

‘Gyre’의 경우 Humpty Dumpty의 설명에 따르면 자이로스코프처럼 ‘돌고 돌다’의 뜻을 일차적으로 가지지만(Gardner 1960 272), Carroll은 이 단어를 통해 개가 빠르고 난폭하게 활쭈는 모습까지도 연상시키려 했다(Gardner 1960 191).⁷⁾ 분명 ‘gyrate’에서 파생된 어휘로 유추되지만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Partridge 185). TT1, TT2, TT3의 경우 Humpty Dumpty의 설명에 따른 일차적인 의미만을, 그것도 센스 세계의 언어로 전달하려 했는데 이 경우 년센스 세계는 센스의 세계로 둔갑하고 포트맨토의 복잡함과 다양성이 단조로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 Carroll이 센스 세계의 단어인 ‘gyrate’를 거부하고 년센스 세계의 언어인 ‘gyre’를 사용한 이유가 센스 세계의 전복에 있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른 번역과는 달리 TT4의 경우 ‘팽돌하다’라는 신조어를 만든 점이 돋보인다. 우선 부사 ‘팽’은 ‘빠르게 공기를 가르며 지나가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며 ‘일정한 좁은 범위를 한 바퀴 도는 모양’으로 ‘강조’와 ‘거친 느낌’을 주고 ‘돌’은 동사 ‘돌다’의 실질 형태소이다. 여기에 ‘하(어간)+다(어미)’를 결합시켜 ‘팽돌하다’를 만들었는데, Carroll이 비록 년센스 언어인 ‘gyre’를 사용하였지만 센스 세계의 ‘gyrate’에서 파생되었거나 관련이 있다고 짐작하게 한 이유가 센스 세계의 언어를 통해서도 적어도 일부 유추는 가능해야 황설수설로 빠지지

7) Carroll은 비록 Jabberwocky」에 나오는 어휘에 대한 해석을 일부 제공하고 있지만, 포트맨토의 가치를 보존하고 해석과 상상력의 범주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 종종 ‘명료한’ 해석은 거부하거나 본인이 제공한 해석을 스스로 뒤집거나 Humpty Dumpty를 통해 상충되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TT4의 ‘팽돌하다’ 또한 ‘팽 돌다’에서 나왔으리라 유추가능하게 함으로써 황설수설이나 의미의 단절로 빠지지 않는 한편도 포트맨토의 다양성과 의미 증폭 기능을 유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TT4의 경우 병렬 가치의 재현에 근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Gimble’의 경우 Carroll에 따르면 우선 ‘구멍을 뚫다’는 의미를 가지며 (Gardner 1960 191), 더 나아가 Humpty Dumpty는 나사송곳(gimlet)을 사용해 구멍을 뚫는 모습을 가리킨다는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Gardner 1960 272).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번역은 TT4라 할 수 있다. ‘나사구하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Humpty Dumpty의 설명까지도 염두에 두고 명사 ‘나사송곳’과 명사 ‘구멍’을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 TT3의 경우 ‘나사송곳’이 빠지기는 했지만 동사 ‘뚫다’와 구멍을 뚫을 때 나는 소리 부사 ‘왕’을 결합시켜 ‘왕뚫다’라는 신조어를 만든 점이 관심을 끈다. TT2의 경우 ‘뚫다’와 ‘파다’를 결합하여 ‘뚫파다’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반면 TT1의 경우 Carroll이 제시한 일차적인 의미만을 센스 세계의 언어인 ‘뚫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번역하고 있으며 다양성이 단조로움으로, 모호함의 상상이 명료함의 현실로 변질된 점이 아쉽다.

‘Outgrabe’의 경우 Carroll의 설명에 따르면 신조어 ‘outgribe’ 동사의 과거형이며, ‘gribe’와 ‘shrike’와 관련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shriek’와 ‘creak’가 나왔다(Gardner 1960 191). 아울러 Humpty Dumpty는 ‘bellow’와 ‘whistle’과 ‘sneeze’ 중간의 소리를 나타내는 동사이며 ‘듣기 좋고 만족감을 주는 소리’라 부연하고 있다(Gardner 1960 272). TT4의 경우 Carroll의 해석은 물론 Humpty Dumpty의 설명을 모두 이해한 후 ‘휘파람’의 ‘휘’와 ‘고함지르다’의 ‘함’을 조합하여 ‘휘함’하다라는 새로운 말을 만든 것이 흥미롭다. 아울러 다른 번역과는 달리 ‘휘함하다’라는 동사는 말맛이 그리 나쁘지 않으며 듣기 좋은 소리일 것 같다. TT3의 ‘꽤꽤 울불었네’의 경우 ‘울다’와 ‘불다’의 혼성어 ‘울불다’ 앞에 거위나 오리га 우는 소리인 부사 ‘꽤꽤’를 삽입했다. 나름대로 신선한 시도이지만 ‘꽤꽤’이라는 의성어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TT1과 TT2의 경우 각각 Carroll의 일차적 설명에 따라 ‘shriek’와 ‘creak’의 사전 풀이인 ‘끼익거리다’와 ‘깁깁거리다’라는 어휘를 사용했는데, ‘끼익거리다’는 ‘차량 따위가 갑자기 멈출 때 나는 브레이크 소리’이며 ‘깁깁거리다’는 ‘몹시 놀라거나 충격을 받아 외마디로 지르는 소리’로 그다지 유쾌한 소리가 아니기에 Humpty Dumpty의 설명

과 부합하지 않는다.

‘Whiffle’의 경우 동사로는 모습을 묘사하는 ‘살랑거리다’ 또는 ‘흔들거리다’와 명사로는 ‘살랑거림’, ‘흔들거림’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소리를 나타내는 ‘휙 하는 소리’가 모두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Carroll의 시대에는 신조어이었거나 널리 통용되지 않던 어휘로 모양을 나타낼 때도 어느 정도 쓰였지만 주로 소리와 관련지어서 사용되었으며 ‘whistle’과 ‘puffily’가 결합된 단어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Partridge 184).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TT1, TT2, TT3, TT4 모두 포트맨토의 가치 달성에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번역들이 모양에 국한되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달리 TT3의 ‘휙휙’은 모양과 더불어 소리를 모두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잇따라 재빨리 움직이거나 스치는 모양’과 ‘힘 있게 휘파람 따위를 잇달아 부는 소리’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부사 ‘휙휙’은, 물론 포트맨토로서의 가치는 상실했지만, 다양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반면 TT1과 TT4가 사용하고 있는 부사 ‘흔들흔들’의 경우 ‘이리저리 자꾸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며 소리가 빠져있다. 아마도 Carroll의 시대에 대한 인식 없이 최근의 사전만을 활용하여 사전 등재 의미만을 그대로 옮긴 무성어가 아닐까 의심이 간다. TT2의 ‘헤치고’의 경우 ‘앞에 걸리는 것을 좌우로 물리치다’의 뜻으로 시의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는 적절하나 다양한 해석의 여지나 의미 증폭 효과는 전혀 없이 오히려 명료성과 단조로움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동사 포트맨토의 번역 사례 비교 2

	burble	galumph	chortle
TT1	부글대며	의기 양양하게	겹겹 웃었다
TT2	노래를 부르면서	달려서	소리를 질렀다
TT3	점점 더 뽕뽕해졌지	우쭐경중	키득키득 웃었다
TT4	부글대며	疾走揚揚	겹웃거렸네

우선 ‘burble’의 경우 현재 사전에 등재된 의미는 ‘보글보글 소리가 나다’이지만, Carroll의 설명에 따르면 ‘bleat’, ‘murmur’, ‘warble’을 결합한 단어로 이들이 내는 소리의 조합이 ‘burble’의 소리이다(Gardner 1960 196). TT1과 TT4

의 경우 사전에 등재된 첫 번째 의미를 센스 세계의 언어로 옮겼을 뿐 Carroll의 철학을 전혀 담고 있지 않으며 번역은 단조로움의 센스 세계로 변질되었다. TT2를 살펴보면 ‘warble’에 해당하는 ‘노래’를 담으려는 노력은 돋보이지만 ‘bleat’와 ‘murmur’는 증발하여 여전히 단조로움으로 귀결된다. 반면 TT3의 경우 동사 ‘뽕뽕거리다’를 변형하여 동사 ‘하다’와 ‘지다’를 결합하여 ‘뽕뽕해지다’라는 신조어를 만든 점이 눈길을 끈다.

‘Galumph’의 경우 년센스 세계의 포트맨토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통용되고 있는 단어이며, ‘gallop’과 ‘triumph’의 혼성어이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포트맨토이다(Partridge 187). 번역을 살펴보면, TT2의 ‘달려서’의 경우 ‘triumph’의 의미가 사라졌고 매우 단조롭다. 반면 TT3과 TT4의 경우 포트맨토의 가치를 재창조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우선 TT3의 경우 ‘triumph’에 상응하는 부사 ‘우쭐’과 ‘gallop’에 상응하는 ‘경중’을 결합하여 포트맨토 ‘우쭐경중’을 만들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TT4의 경우에도 ‘gallop’이 ‘빠른 속력으로 달리다’를 의미한다는 점에 착안, ‘疾走’를 사용하고 ‘triumph’에 상응하는 ‘揚揚’을 결합하여 포트맨토 ‘疾走揚揚’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출발어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포트맨토의 창조를 시도하고 있으며 다중 의미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독서 흥미를 제공하고 있다.

‘Chortle’의 경우 Carroll이 처음 사용한 후 통용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사전 등재어로 ‘chuckle’과 ‘snort’의 혼성어이다. TT1의 경우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설명을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포트맨토의 특성이 사라졌고, TT2의 경우 ‘snort’만을 살렸고 ‘chuckle’이 증발했다. TT3의 의성어 부사 ‘키득키득’은 ‘chuckle’이 나타내는 소리와 차이가 있다. 반면 TT4의 경우 포트맨토를 재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부사 ‘낄낄’과 동사 ‘웃다’의 조합으로 보이는 ‘낄웃거렸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chuckle’과 ‘snort’ 모두 포함하면서 포트맨토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재현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다.

3. 「Jabberwocky」의 명사 포트맨토의 번역

명사의 경우 ‘번역’이 사실상 힘든 경우가 많다. 다음을 살펴보자.

〈표 4〉 명사 포트맨토의 번역 사례 비교 1

	tove	wabe	borogove	rath
TT1	도우브	언덕배기	보로고브	라스
TT2	도우브	언덕허리	보로고브	라스
TT3	토브	사이넬길 한쪽	보로고브	레스
TT4	오도와	외밭	보로고브	라스

「Jabberwocky」에 등장하는 명사의 경우 ‘번역’이 사실상 힘들다. 본고의 제 2장과 제4장에 나오는 동사나 수식어 포트맨토 어휘의 경우 대다수가 혼성어 차원의 신조어이며 ‘아리아드네의 실’이 존재하고 그 자체가 시의 장을 형성하는 기능까지는 하지 않는 반면, 명사의 경우—특히 고유명사는 더욱 그렇다—대다수가 혼성어 차원의 포트맨토가 아니라 광의의 포트맨토로서 Carroll의 상상에 기초한 극단적으로 작위적이고 개인적인 결과물이며 장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Tove’의 경우, Carroll의 설명에 따르면, 오소리 종에 속하며 부드럽고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뒷다리가 길고 뿔이 있는 동물로 치즈를 주식으로 한다(Gardner 1962 271). 반면 Humpty Dumpty는 ‘tove’가 오소리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도마뱀과 비슷하다는 일부 상충되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Gardner 1960 271). 혼성어는 아니지만 포트맨토의 특성인 의미 해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전형적인 Carroll의 기법이다. TT1, TT2, TT3의 경우 음을 차용하고 있으며 TT4의 경우 상상력에 기초하여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 경우 어차피 가상의 동물이며 특정 어휘들의 조합도 아니며 명사의 장 형성 기능을 고려할 때 차용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며, 특히 ‘tove’가 뒤에 나오는 ‘borogove’와 운율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Carroll이 『The Hunting of the Snark』의 서문에서 밝혔기 때문에(Gardner 1962 42), TT4와 같이 ‘tove’는 ‘오도와’라는 신조어로 번역하고 뒤의 ‘borogove’는 음을 차용하여 ‘보로고브’로 옮길 경우 운율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Wabe’는 ‘언덕배기’를 가리킨다고 Carroll은 설명하고 있다(Gardner 1960 191). 물론 Carroll답게 Humpty Dumpty를 통해서는 ‘wabe’가 ‘푸른 잔디가 깔린 평지’라는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하면서 ‘long way before it, and a long way

*behind it*에서 나온 포트맨토라고 말한다(Gardner 1960 272). TT1의 ‘언덕배기’와 TT2의 ‘언덕허리’의 경우 Carroll의 설명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센스 세계의 언어를 사용하여 일차적인 의미만을 전달하고 있다. 반면 TT3의 ‘사이넘길 한쪽’이 독특한데, ‘사이를 넘어가는 길의 한쪽’이라는 말에서 만든 어휘이며 Humpty Dumpty의 설명까지도 고려하고 있어 병렬가치의 재현에 상대적으로 근접했다고 보인다. TT4의 ‘외밭’의 경우—이 단어가 ‘瓜田’이라면⁸⁾—지나친 현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 기법은 동일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착어 표현을 사용하는 Vinay and Darbelnet(52)의 ‘등가 전략(équivalence)’에 해당된다. 가장 큰 장점은 독자로 하여금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Venuti는 자국화(domestication)라 부르며 도착어 문화 및 언어에 친숙하게 하는 유용한 전략이라 설명하고 있다(116). 하지만「Jabberwocky」에 사용된 ‘wabe’는 출발어 독자에게도 생소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Carroll이 의도적으로 창조한 지극히 작위적인 어휘인데, 출발어 독자에게 친숙하고 지시적, 그리고 함축적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외밭’이라는 어휘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Borogove’의 경우 Carroll은 ‘멸종된 앵무새의 일종으로 날개가 없고 부리가 위로 향하고 있으며 해시계 밑에 등지를 틀며 사는 동물’로 송아지 고기를 주식으로 삼는다고 설명한다(Gardner 1960 191). Humpty Dumpty는 ‘자루걸레와 비슷하게 생긴 새’로 털이 뽀족뽀족 서 있다고 일부 상충되는 설명을 하고 있다(Gardner 1960 272). 번역에 있어, 전술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특히 ‘tove’와 운율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tove’와 함께 차용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되며, 번역의 경우 모든 TT에서 음을 차용하고 있다.

‘Rath’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거북이의 일종으로 주둥이의 모양이 상어와 비슷하고 초록색 몸통을 지녔으며 굴을 좋아한다고 Carroll은 설명한다(Gardner 1960 191). 반면 Humpty Dumpty는 ‘rath’가 초록색 동물은 맞지만 돼지와 비슷하다고 설명한다(Gardner 1960 272). 모든 TT에서 표기법에서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음을 차용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8) 물론 다른 뜻을 담고 있는 신조어일 가능성도 있지만, 신조어를 만들 경우 기존에 통용되지 않는 어휘를 만들어야 기존 어휘의 지시적, 함축적 의미 영역에 간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조어가 아니거나 신조어라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가상의 일반명사라 할지라도 도착어로의 현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 또한 일부 수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상상속의 ‘아득신이’를 번역사가 영어의 ‘goblin’으로 대체하여 도착어 독자에게 친숙함을 제공하고 비록 지시적 의미의 왜곡은 있더라도 함축적 의미를 전달하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김도훈 15). 하지만 이 경우에도 비록 가상의 존재 이기는 하지만 출발어 어휘가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가지며 전체는 아니더라도 사회 일부에서만이라도 이미 통용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5〉 명사 포트맨토의 번역 사례 비교 2

	Jabberwock	Jubjub bird	Bandersnatch	Tumtum tree
TT1	재버워크	접접새	밴더스내취	텀텀 나무
TT2	재버워크	접접새	밴더스내치	툼툼 나무
TT3	재버워크	주브주브 새	밴더스내치	툼툼 나무
TT4	재버워크	주브주브 새	밴더스내치	텀텀 나무

「Jabberwocky」에 나오는 상기 단어들은 모두 고유명사이며, 번역에 있어서는 모든 TT가 차용 기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했듯 명사의 경우 번역이 매우 어려우며, 특히 고유명사는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고유명사가 작품의 핵심을 이루고 장을 형성하며 각각이 개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낱센스 언어의 경우 작위적인 정도가 극에 달하며 작가의 상상에 의해 창조된 명사들이기 때문에 번역사에 의해 번안이나 교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출발어 텍스트의 색채를 지나치게 왜곡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다. 예를 들어 『홍길동전』의 ‘홍길동’이 번역사에 의해 도착어에서 ‘Smith’로 바뀐다면 옳은 것일까? 마찬가지로 ‘Jabberwock’가 ‘용돌이’ 등으로 바뀌는 것은 작품 전체를 흔들 수 있다.

4. 「Jabberwocky」의 수식어 포트맨토의 번역

낱센스 시 「Jabberwocky」에 나오는 포트맨토 어휘의 대다수는 수식어이다.

이 시가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도 수식어 포트맨토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래의 번역 사례를 살펴보자.

〈표 6〉 수식어 포트맨토의 번역 사례 비교 1

	brillig	slithy	mimsy	mome
TT1	저녁 무렵	유연활달	우울해졌고	침울한
TT2	저물녘	유연활달	가련비참했고	집나길 잃
TT3	지글녘	유근한	میم지했네	몸
TT4	굽때	낭근한	날불	집나

‘Brillig’의 경우 Carroll은 ‘broil’ 동사에서 파생된 어휘로 ‘저녁 식사를 위해 (고기를) 굽는 시간’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Gardner 1960 191). Humpty Dumpty 또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오후 4시를 가리킨다’고 부연한다(Gardner 270). TT3과 TT4의 경우 Carroll과 Humpty Dumpty의 설명을 모두 참고하고 신조어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 TT3의 ‘지글녘’의 경우 고기 등이 구워질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지글대다’의 어근인 ‘지글’과 어떤 때의 무렵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녘’을 결합시킨 어휘이며, TT4의 경우 ‘굽다’의 어근 ‘굽’과 시간을 나타내는 ‘때’를 조합하고 있다. 이들 두 번역은 요리하는 모양과 소리(특히 고기 구을 때 나는 소리)와 시간을 모두 암시하고 있는 신조어이다. 반면 TT1과 TT2의 ‘저녁 무렵’과 ‘저물녘’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널리 통용되는 센스 세계의 어휘로서 시간만을 암시하고 있을 뿐 요리하는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내주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단조롭기 때문에 의미 해석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저녁이나 저물녘의 경우 해가 질 때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사이를 가리키기 때문에 Humpty Dumpty가 제시한 ‘오후 4시’와도 시간상으로 차이가 있다.

‘Slithy’의 경우 Carroll은 ‘smooth’에 상응하는 ‘slimy’와 ‘active’에 상응하는 ‘lythe’의 혼성어라 설명하고 있다(Gardner 1960 191). Humpty Dumpty의 경우 lythe에서 파생된 lithe와 slimy의 혼성어로 ‘slithy’는 포트맨토의 성격을 가진다고 부연한다(Gardner 1960 271). 물론 포트맨토가 되면서 의미에 있어서의 변형과 증폭이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slithy=smooth and active’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TT가 신조어를 만들려 노력했으며 TT1과 TT2의 경

우 둘 다 ‘유연하다’의 어근 ‘유연’과 ‘활달하다’의 어근 ‘활달’을 조합하여 ‘유연활달’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하지만 신조어가 되면서 ‘slithy’에 새로운 의미—징그럽고 끈적끈적하다—가 생성되었음을 간과했다. 이는 문맥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뒤의 ‘tove’가 도마뱀이나 오소리의 성질을 가진 동물이며 그리 유쾌하지 않은 동물이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전술했듯 포트맨토의 성격상 혼성어라고 할지라도 구성 요소의 색깔이 그대로 분리되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되고 변화를 일으키고 또 다른 의미를 만든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TT1과 TT2와는 달리 TT3의 경우 ‘유연하다’에서 ‘유’를 ‘끈적끈적하다’에서 ‘끈’을 떼어내어 ‘유끈하다’는 말을 만들었다. 물론 ‘active’의 의미가 상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도마뱀이 끈적끈적하다는 사실에 착안한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active’의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할지라도 복수의 의미가 들어갔으며, 수용자 차원 반응을 중시하는 역동적 등가의 경우에도 의미가 다소 다르더라도 수용자 반응 차원의 등가를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⁹⁾ TT4의 ‘낭끈한’의 경우 추론에 확신을 가지기가 매우 힘든데, 필자의 짧은 지식으로는 ‘郎當’ 또는 ‘浪浪’에서 ‘郎’ 또는 ‘浪’을, 한글 어휘 ‘끈끈한’의 ‘끈’과 결합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추론이 옳다면 매우 참신한 시도라 평가할 수 있다. 뒤에 나오는 ‘tove’를 수식하기에 적절할 뿐만 아니라 포트맨토의 성격상 그리고 「Jabberwocky」 어휘의 성격상 저자의 설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의미 형성의 가능성과 상상력을 남겨두고 있을뿐더러 Carroll의 경우 의도적으로 자신을 투영시킨 Humpty Dumpty를 통해 자신의 설명을 파괴하거나 다른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의미 증폭과 다양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석이 여러 갈래로 되거나 완벽하게 해석이 되기를 거부하면서도 독자에게 의아함과 매료로 선사한다면 진정한—또는 가장 근접한—포트맨토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수식으로 간략히 설명하면, M1을 출발어 의미, M2를 도착어 의미, E를 문장들의 효과함수라 가정할 때, 번역가는 $E(M1)=E(M2)$ 의 방정식에서 미지의 M2를 찾아야 하며, 이 때 $E(M1)=E(M2)$ 가 반드시 $M1=M2$ 는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수용자 반응 차원의 역동적 등가에 관한 자세한 개념은 Nida and Taber(1982) 및 Nida(1964) 참조할 것.

‘Mimsy’의 경우 Carroll은 ‘miserable’하고 ‘unhappy’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어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Gardner 1960 191), Humpty Dumpty는 ‘flimsy’와 ‘miserable’을 결합한 포트맨토라 얘기하고 있다(Gardner 1960 272). TT1의 ‘우울해졌고’의 경우 포트맨토가 아니며 TT2의 ‘가련비참했고’의 경우 ‘가련하다’와 ‘비참하다’의 혼성어로 Humpty Dumpty의 설명을 충실히 참고하여 만든 포트맨토이다. TT3의 경우 음을 차용하여 한글로 ‘밈지하다’로 표현했는데 이는 독자에게 ‘무의미함’을 넘어서 황설수설로 다가올 수 있다. 지시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번역에서 주석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하는 등의 보상 시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Carroll은 센스 세계의 전복을 언센스 세계의 언어 사용을 통해 기도했지만 적어도 황설수설로 빠지지 않기 위해 포트맨토 사용에 있어서도 지시 관계가 일부 존재하거나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요소를 어휘에 삽입하고 있음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각주 8을 보더라도 반드시 $M1=M2$ 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M2의 부재는 피해야 하며, 이는 M2가 없다면 수용자 반응 차원의 비등가는 물론 무반응을 유도할 뿐이기 때문이다. TT4의 ‘날붙’의 경우 ‘flimsy’에 상응하는 ‘가날픈’의 ‘날’과 ‘miserable’에 상응하는 ‘불쌍한’의 ‘불’을 결합하였고 출발어 텍스트의 포트맨토의 가치를 재현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Mome’의 경우 Carroll은 ‘grave’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지만(Gardner 1960 191), Humpty Dumpty는 ‘from home’을 줄인 말로 ‘길을 잃은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부연하고 있다(Gardner 1960 272). TT1의 ‘침울한’의 경우 Carroll의 설명을 센스 세계의 언어로 단순하게 옮겨 단조로움만을 초래했으며, TT2의 ‘집나가얏’의 경우, 흥미로운 신조어인데, Humpty Dumpty의 ‘from home’과 ‘길을 잃다’의 설명을 모두 참고하여 만들었다. Carroll의 ‘grave’가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집에서 멀어지고 길을 잃으면 당연히 근심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집나가얏’ 자체에 ‘침울하다’는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TT3의 ‘뫼’의 경우 전술한 ‘밈지’와 마찬가지로 지시 관계나 연상 작용 모두 없다. TT4의 ‘집나’는 ‘집을 나가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 7〉 수식어 포트맨토의 번역 사례 비교 2

	frumious	vorpal	manxome	uffish
TT1	씨근덕거리는	보필	맨 섬	어수선한
TT2	씨근덕대는	보필	*생략	조용히
TT3	씩성난	보팔	맨숨	똥탁한
TT4	씩성한	보팔	무시무시한	거쉬한

‘Frumious’의 경우 ‘fuming’과 ‘furious’를 균형감 있게 조합하면 발음되는 단어라 설명하고 있다(Gardner 1960 195). 일부 학자들은 ‘frumpish’와 ‘gloomy’의 조합에 형용사 접미사 ‘ious’를 첨가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Partridge 186). TT1과 TT2의 ‘씨근덕거리다’와 ‘씨근덕대다’의 경우 ‘숨소리가 매우 거칠게 나다’의 뜻으로 포트맨토가 아닌 센스 세계의 언어이며 ‘furious’가 다소 희석된 것으로 보인다. TT3의 ‘씩성난’의 경우 흥미로운데 ‘씩씩거리다’와 ‘성나다’를 조합해서 만든 신조어로 ‘furious’와 ‘fuming’ 모두 담고 있으며 포트맨토이다. TT4의 경우 ‘fume’에 해당하는 ‘씩’과 ‘furious’에 해당하는 ‘성’을 결합하여 만든 단어인데 TT3과 마찬가지로 Carroll의 설명에 충실하면서 포트맨토의 가치를 재현하고 있다.

‘Vorpal’의 경우 Carroll 자신도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할 수 없다(“I am afraid I can’t explain ‘vorpal blade’ for you”)고 말한다(Gardner 1960 196). 현대 사전에는 ‘keen-edged’라는 뜻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voracious’와 ‘narwhal’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Partridge 187). 모든 TT가 음을 차용하는 방식의 번역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제대로 된 닌센스 언어가 아니다. 최소한 사전에 있는 ‘keen-edged’의 의미라도 옮기든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 포트맨토의 가치를 재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유명사도 아닌데 음을 차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Manxome’의 경우 ‘maniac’과 ‘Manx’, 그리고 ‘fearsome’의 조합이며(Partridge 187), Manx의 경우 섬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켈트어이며, 섬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 또한 Manx라 불렀다(Gardner 1960 196). TT1의 ‘맨 섬’의 경우 ‘manxome’의 음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점과 ‘섬’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섬’과 연관시키려 한 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TT3의 경우 차용이며, 전술했듯 지시 관계나 연상 작용이 없어 수용자의 반응 자체가 존재하기 힘들며, TT2의 경우 생략을 했는데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의 각주 8의 수식을 상기하면, M의 자체가 상실된다면 이를 번역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TT4의 ‘무시무시한’의 경우 ‘fearsome’에 해당하지만 ‘maniac’과 ‘Manx’가 상실되고 포트맨토가 아니다. 물론 생략하거나 차용 기법을 사용한 경우보다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Uffish’의 경우 Carroll은 친구 Standen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gruffish’한 목소리, ‘roughish’한 매너, ‘huffish’한 성격을 동시에 연상시키는 말이라 설명하고 있다(Gardner 1962 22). TT1의 ‘어수선했’의 경우 아마도 ‘roughish’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포트맨토도 아닐뿐더러 ‘gruffish’와 ‘huffish’가 증발했다. TT2의 ‘조용히’의 경우 포트맨토도 아니며 ‘gruffish’, ‘roughish’, ‘huffish’ 어디에도 상응하지 않는다. ‘TT3의 ‘똥탁한’의 경우 ‘똥한’의 ‘똥’과 ‘탁하다’의 ‘탁’을 조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똥한’은 ‘huffish’에 상응하며 ‘탁하다’는 ‘gruffish’에 상응하며 포트맨토이다. TT4의 ‘거쉬한’의 경우 ‘거칠다’의 ‘거’와 ‘(목소리)가 쉬다’의 ‘쉬’를 결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TT3과 마찬가지로 좋은 시도라 할 수 있다.

〈표 8〉 수식어 포트맨토의 번역 사례 비교 3

	tulgey	frabjous	snicker-snack
TT1	털지	멋진	폭폭 짤렸다
TT2	털지	멋진	휘둘렀다
TT3	털지	기쁘고 기쁜	날째 짜르고 또 짤렸네
TT4	뽁뽁한	멋거운	속속

‘Tulgey’의 경우 ‘thick’와 ‘bulgey’의 조합이다(Partridge 187). TT1, TT2, TT3의 경우 음을 차용하는 방식의 번역을 하고 있으며, TT4의 경우 포트맨토는 아니며, 대략적 의미는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Frabjous’의 경우 현대 영어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Carroll 시대에는 사전에 등재되거나 통용되지 않던 단어로 ‘fair’, ‘beautiful’, ‘joyous’의 일부분씩을 추출하여 만든 단어이다(Partridge 187). TT1, TT2의 경우 ‘멋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fair’ 내지 ‘beautiful’에 해당하는 의미만을 센스 세계의 언어

로 옮겼으며, TT3은 ‘기쁘다’를 사용하여 ‘joyous’의 의미를 센스 세계의 의미로 옮겼다. 반면 TT4의 경우 ‘fair’와 ‘beautiful’에 해당하는 ‘멋있다’에서 ‘멋’을, ‘joyous’에 해당하는 ‘즐거움’에서 ‘거’를 추출하여 포트맨토 신조어 ‘멋거움’을 만들어 병렬가치 달성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nickers-snack’의 경우 생동감 있는 단어로 반복 행위를 나타내며 칼을 가리키는 ‘snickersnee’라는 고어와 관련이 있다(Partridge 185). TT1과 TT3의 ‘폭폭 찢렸다’와 ‘날쌔게 찢르고 또 찢렸네’의 경우 ‘친절하게’ 의미를 풀어주고 있으며 ‘Snickers-snack’의 두운법에 상응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으나 센스 세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은 다소 이롭다. TT2의 ‘휘둘렀다’는 행위 묘사만을 할뿐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거나 두운법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 TT4의 ‘속속’의 경우 아마도 의성어 부사 ‘씩씩’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년센스 작품은 기존의 텍스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어, 외연의 기존 의미가 아닌 내면의 해석을 요하는 반성적 텍스트이며 센스의 개념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센스의 세계를 전복하는 패러디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를 구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포트맨토 어휘이다.

본고는 년센스 문학을 대표하는 Carroll의 『Through the Looking Glass』 제1장의 「Jabberwocky」에 등장하는 포트맨토 어휘의 번역을 살펴보았다. 논의의 핵심은 각각의 새로운 포트맨토의 가치가 번역 과정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도착어 텍스트에서 재창조되는가와 포트맨토의 본질적인 가치가 도착어 텍스트에서 재현되는가이다. Carroll은 Victoria 시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질서와 규칙을 「Jabberwocky」에서 새로운 포트맨토 어휘의 사용을 통해 교묘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센스의 반대편에 있는 년센스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Carroll의 년센스의 세계는 전혀 불쾌하거나 역겹지 않으며 오히려 매우 유쾌하다. 이러한 가치가 번역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재창조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필자는 노력했다.

이에 본고는 동사, 명사, 수식어로 「Jabberwocky」의 포트맨토 어휘를 분류

한 후 4종의 번역과 비교하면서 병렬 가치의 달성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명사의 경우 그 가치나 특성이 광의의 포트맨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번역’이 쉽지 않은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동사, 특히 수식어의 경우에는 출발어 텍스트에서도 다양한 포트맨토를 발견할 수 있었고 번역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크게는 세 부류의 번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Jabberwocky」의 포트맨토가 그 다양성과 의미 증폭 기능을 상실하고, 년센스 세계의 ‘다양성’과 ‘아름다운 무의미’가 센스 세계의 ‘단조로움’과 ‘지루한 명료함’으로 변질되거나 왜곡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gimble’이 ‘뚫다’로 번역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비록 전복을 꿈꾸기는 했지만 무의미한 말장난이나 황설수설로 빠진 번역도 있다. 예를 들어 ‘mimsy’의 음을 차용하여 ‘밈지하다’로 번역한 경우이다. 셋째, 센스 세계의 규칙에 의해 지배받고 있던 Alice의 당혹감과 매료가 번역을 통해 재현되고 재창조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frabjous’가 ‘멋져운’으로 번역된 경우를 들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생략 등의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Alice가 차츰 년센스 세계의 언어를 이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센스 세계 언어 규칙의 해체와 전복을 통해 가능했기에 번역에 있어서는 상기 세 번째 방식의 접근법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Jabberwocky」의 새로운 포트맨토 어휘 사용을 통한 형식적 특성은 단순히, 그리고 우연히 시에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품 전체의 본질을 이루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Jabberwocky」 번역을 포트맨토 어휘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나름대로 다양한 번역 기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체의 틀에서 보면 작은 부분만을 다루었을 뿐이다. 앞으로 번역학 연구에 있어 「Jabberwocky」뿐만 아니라 여러 년센스 텍스트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다양한 각도에서 번역 논의가 축적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 김도훈 (2006) 「문화소 번역에서의 인지적 축적물의 역할 및 번역전략」,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2): 3-29.

- 김정우 (1996) 『영어를 우리말처럼, 우리말을 영어처럼(이론편)』, 서울: 창문사.
- Gardner, Martin (1960) *The Annotated Alice*, New York: Clarkson.
- (1962) *The Annotated Snark*, Harmondsworth: Penguin.
- Gentzler, Edwin (1993) *Contemporary Translation Theories*, London: Routledge.
- Holquist, Michael (1969) ‘What is a Boojum? Nonsense and Modernism’, *Yale French Studies* 43: 145-164.
- Kelly, Richard (1977) *Lewis Carroll*, Boston: Twayne.
- Lecerclé, Jean-Jacques (1994) *Philosophy of Nonsense: The intuitions of Victorian nonsense literature*, London: Routledge.
- Nida, Eugene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 Nida, Eugene & Charles Taber (1982)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Nord, Christiane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Manchester: St. Jerome.
- Orero, Pilar (2007) *The Problems of Translating “Jabberwocky”: The nonsense literature of Lewis Carroll and Edward Lear and their Spanish translators*, 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 Partridge, Eric (1950) ‘The Nonsense Words of Edward Lear and Lewis Carroll’, in Eric Partridge (ed.) *Here, There and Everywhere. Essays upon Language*, London: Hamish Hamilton, 162-188.
- Redfern, Walter (1984) *Puns*, London: Blackwell.
- Sewell, Edith (1952) *The Field of Nonsense*, London: Chatto and Windus.
- Venuti, Lawrence (1995) *The Invisibility of the Translator: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Vinay, Jean Paul and Jean Darbelnet (1977) *Stylistique comparée du français et de l’anglais*, Paris: Didier.

<연구 자료>

- Carroll, Lewis (1872/1998)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and Through the Looking-Glass*, London: Penguin.

손영미 옮김 (2001) 『거울 나라의 앨리스』, 서울: 시공주니어.

최용준 옮김 (2007)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서울: 열린책들.

최인자 옮김 (2005) 『거울 나라의 앨리스』, 서울: 북폴리오.

최현미 옮김 (2005) 『거울나라의 앨리스』, 서울: 넥서스.

부록 1

(ST: Carroll 131-132)

JABBERWOCKY

‘Twas brillig, and the slithy toves
Did gyre and gimble in the wabe:
All mimsy were the borogoves,
And the mome raths outgrabe.

“Beware the Jabberwock, my son!
The jaws that bite, the claws that catch!
Beware the Jubjub bird, and shun
The frumious Bandersnatch!”

He took his vorpal sword in hand:
Long time the manxome foe he sought—
So rested he by the Tumtum tree,
And stood awhile in thought.

And, as in uffish thought he stood,
The Jabberwock, with eyes of flame,
Came whiffling through the tulgey wood,
And burbled as it came!

One, two! One, two! And through and through
The vorpal blade went snicker-snack!
He left it dead, and with its head
He went galumphing back.

“And hast thou slain the Jabberwock?
Come to my arms, my beamish boy!
O frabjous day! Callooh! Callay!”
He chortled in his joy.

‘Twas brillig, and the slithy toves
Did gyre and gimble in the wabe:
All mimsy were the borogoves,
And the mome raths outgrabe.

부록 2

(TT1: 손영미 28-32)

재버위키

저녁 무렵, 유연활달 토투브
언덕배기를 선회하며 뚫고 있었다.
보르고브들은 모두 우울해졌고,
침울한 라스는 끼익거리고 있었다.

“재버위크를 조심하거라, 내 아들이!
물어뜯는 주둥이와 할퀴는 발톱을!
점점새를 조심하고, 사납게
씨근덕거리는 밴더스내취를 피해!”

그는 보펠 칼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맨 섬으로 적을 찾아다녔다.
그러고는 텅텅 나무 옆에 머물러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수선한 생각에 잠겨 있자니,
재버위크가 눈에 불꽃을 튀기며
털지 나무 사이로 흔들흔들,
부글대며 달려왔다!

하나, 둘! 하나, 둘! 서슬이 시퍼런
보펠 칼로 푹푹 찢렸다!
그는 재버위크를 죽이고
머리를 잘라 의기 양양하게 돌아왔다.

“네가 재버위크를 죽였다고?
이리 오너라, 내 빛나는 아들이!
오, 멋진 날이구나! 칼루! 칼리!”
그는 기뻐서 꺄꺄 웃었다.

저녁 무렵, 유연활달 토투브
언덕배기를 선회하며 뚫고 있었다.
보르고브들은 모두 우울해졌고,
침울한 라스는 끼익거리고 있었다.

부록 3

(TT2: 최현미 157-158)

재버위키

저물녘에, 유연활달 토투브
언덕허리를 선회하며 뚫았다.
보르고브는 모두 가련비참했고
집나길잃 라스는 킁킁거렸다.

“재버위크를 조심해라. 내 아들이!
물어뜯는 이빨과 활귀는 발톱을!
접접새를 조심하고 도망쳐라.
사납게 씨근덕대는
밴더스내치에게서!”

그는 보필 칼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적을 기다려왔다.
그렇게 툼툼 나무 옆에 누워
기다리는 동안 생각했다.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재버위크가 눈에 불꽃을 뿜으며
털지 숲을 헤치고 달려왔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쓱쓱 쓱쓱
보필 칼날을 휘둘렀다!
그는 재버위크를 죽이고 베어낸 머리를 가지고
달려서 돌아왔다.

“네가 재버위크를 죽였다고?
이리 오렴, 내 영리한 아들이!
오늘을 멋진 날! 칼루! 칼리!”
그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

저물녘에, 유연활달 토투브
언덕허리를 선회하며 뚫았다.
보르고브는 모두 가련비참했고
집나길잃 라스는 킁킁거렸다.

부록 4

(TT3: 최인자 214-217)

재버위키

지글녘, 유끈한 토브들이
사이넵길 한쪽을 발로 빙돌고 왕뚫고 있었네.
보로고브들은 너무나 멈지했네.
몸 레스들은 껍뻍 울불었네.

“재버위크를 조심해라, 나의 아들이!
물어뜯는 턱과 움켜쥐는 발톱을!
주브주브 새를 조심해라. 그리고 씩성난
벤더스내치를 피하거라.”

그는 손에 그의 보팔 칼을 집어들었네.
오랫동안 그는 맨숨 적과 싸웠네.
마침내 툼툼 나무 옆에서 휴식을 취했지.
그리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 서 있었네.

그가 뚱탁한 생각 속에 잠겨 서 있을 때,
재버위크가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털지 나무 사이를 훑훑 다가왔네.
그리고 점점 더 뽕뽕해졌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보팔 칼날이
날쌔게 찌르고 또 찌렀네.
그는 죽은 재버위크를 버려둔 채, 그 머리를 가지고
우쭈렁중 돌아왔네.

“네가 재버위키를 죽였단 말이나?
이리 오너라. 나의 빛나는 아들이!”
오, 기쁘고 기쁜 날! 칼루! 칼레이!
그는 기쁨에 넘쳐 키득키득 웃었네.

지글녘, 유끈한 토브들이
사이넵길 한쪽을 발로 빙돌고 왕뚫고 있었네.
보로고브들은 너무나 멈지했네.
몸 레스들은 껍뻍 울불었네.

부록 5

(TT4: 최용준 168-172)

재버위키

굽때, 낭끈한 오도와들은
외발에 팽돌하고 나사구하고 있었네.
날불 보로고브들.
집나 라스들은 휘함하고 있었네.

재버위크를 조심하렴, 아들이!
물어뜯는 아가리와 할퀴는 발톱을!
주브주브 새를 조심하고,
쉴쉴 밴더스내치를 조심하려무나!

그 사내는 보팔 검을 잡았네.
무시무시한 괴물을 오랫동안 찾아다녔지.
텀텀 나무 옆에서 쉬며
생각에 잠겨 잠시 서 있었네.

거쉬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재버위크가 눈에 불꽃을 튀기며
뻑뻑한 나무 사이로 흔들흔들
부글대며 나왔다!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폭, 폭
보팔 검으로 속속!
사내는 재버위크를 죽이고
머리를 잘라 疾走揚揚 돌아왔노라.

「네가 재버위크를 죽였다고?
이리 오너라, 빛나는 내 아들이!
오, 멋진 날이로구나! 칼루! 칼레!」
사내는 기쁨에 겨워 꺾어놓았네.

굽때, 낭끈한 오도와들은
외발에 팽돌하고 나사구하고 있었네.
날불 보로고브들.
집나 라스들은 휘함하고 있었네.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portmanteau words in 「Jabberwocky」

Kim, Do-Hun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ilding upon previous research on nonsense literature and translation studies,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role and the importance of portmanteau words that are deployed in *Jabberwocky* and to illustrate how such devices are transferred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Nonsense is a kind of “paradox” or textual double bind. It is both free and constrained. It tells the reader to abide, and not to abide, by the rules of language (Lecerclé 25).

It should be noted that Carroll’s “paradox” and subsequent “rejection” and “subversion” of the “sense world” are mainly driven by the use of newly created portmanteau words, making St. Jerome’s widely accepted maxim “*non verbum e verbo, sed sensum exprimere de sensu* (not word for word, but sense for sense)” unfit in the translation of *Jabberwocky*. Hence the translator must seek to have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value that source text portmanteau words possess and attempt to retain and recreate the value of the target text portmanteau words.

As for the research data and procedure, this study uses the translations of four target texts and classifies the portmanteau words into three categories—verb, noun, and qualifier. Then, for each category, this paper illustrates and evaluates whether the target text succeeds in reproducing “parallel value,” thereby retaining Alice’s feeling of awkwardness and enchantment and eventually reviving Carroll’s “imaginary” and “pleasant” nonsense world, thereby enabling Alice and readers cross the frontier of the sense world.

The author hopes the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riggering further discussion on the translation of nonsense literature and to offering guidelines for those in the translation profession.

▶ Key Words: dynamic equivalence, nonsense, parallel value, portmanteau, sense, subversion

김도훈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부교수

kdh8377@pufs.ac.kr

관심분야: 순차통역, 번역학

논문투고일: 2010년 1월 05일

심사완료일: 2010년 3월 02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09일